



## 일본을 통일한 천하인의 성 아쿠타가와 산성 터

아쿠타가와 산성터는 셋쓰 계곡 동쪽에 있는 미요시아마 산에 위치하며, 전국시대(1467~1615)에 셋쓰(현재의 오사카 북부)에 지어진 산성 중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성터입니다. 규모는 동서로 약500m, 남북으로는 약 400m 정도이며, 산기슭에서 세 방면으로 강이 흐르고 협곡도 있어 적이 공격하기 어려운 천연 요새였습니다. 지형의 고저차를 살려 “혼마루”라 불리는 성의 중심은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었고, “구루와”라 불리는 일반인들이 생활하는 곳은 산 전체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후 일본의 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높은 돌담이나 해자(성 주위에 둘러 판 못)가 아닌 산등성이를 끄는 형태의 호리키리(堀切 : 산등성을 파서 만든 도랑)와 도루이(土塁 : 흙을 쌓아 만든 제방형 방벽)를 이용하여 적의 침범을 막았다고 하는데, 이 성터에서는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골짜기 근처에서는 당시로서는 희귀한 돌담도 볼 수 있습니다.

아쿠타가와 산성은 1516년까지 셋쓰를 수호했던 호소카와 다카쿠니(細川高国)가 축조했으며, 300~500명가량의 사람들이 밤낮으로 공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다카쿠니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호소카와 하루모토(細川晴元)가 입성했지만, 1549년에 아와(현재의 도쿠시마현)에서 셋쓰로 진출해 있던 가신 미요시 나가요시(三好長慶)에 의해 추방당했습니다. 나가요시는 장군 아시카가 요시테루(足利義輝) 마저도 교토에서 쫓아내고, 실질적으로 당시 일본 정치의 중심지였던 기나이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53년에는 아쿠타가와 산성을 공격하여 자신의 거성으로 삼았습니다. 성 내에는 마쓰나가 히사히데(松永久秀) 등 가신들이 저택을 지었으며, 그들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성으로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쿠타가와 산성은 전국시대의 기나이 지역을 통괄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발굴 조사를 통해 훌륭한 건물터가 발견되었고 다양한 생활 도구도 출토되었습니다.

1568년, 아시카가 요시아키(足利義昭)와 결탁한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미요시 일족(三好一族)을 뒤쫓아 입성하여, 이 땅에서 천황의 사신을 맞이하고 기나이의 공가 및 무사 등 주요 인사들과 대면한 후 염원하던 교토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그 후 아시카가 요시아키의 가신이었던 와다 고레마사(和田惟政)가 성주가 되어 크리스찬 다이묘로 유명한 다카야마 우콘(高山右近)의 아버지에게 성을 지키는 역할을 맡겼으나 1569년에 다카쓰키 성으로 옮겨가면서 서서히 아쿠타가와 산성은 역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쿠타가와 산성터 상상의 일러스트 (그림: 야마모토 다카토시)



혼마루에서 발견된 초석건물 (궁궐건축)



혼마루 남쪽의 한 단 아래쪽에 위치한 구루와에서 발견된 전열건물(博列建物 : 판모양의 기왓장이 건물을 둘러싸듯 지면에 박혀 있는 건물). 산성에서는 확인된 사례가 적은 망루일 가능성이 있다.

전국시대 최초로 일본을 통일한 천하인 미요시 나가요시

미요시 나가요시(三好長慶)

미요시 나가요시는 1553년부터 1560년까지 약 7년간 장군을 옹립하지 않고 아쿠타가와 산성에서 기나이 지방(실질적으로 당시 일본 정치의 중심)을 호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오다 노부나가보다 앞선 천하인이라 불리는 까닭입니다. 또한 성의 바로 아랫마을 마카미무라와 군계무라의 수론(水論 : 벼농사를 위해 논에 대는 용수를 둘러싼 분쟁)을 중재하여 지역민과 마주하는 정치에 힘을 쏟았습니다. 사카이의 상인들과 어울려 연가라고 하는 시나 다도를 즐기며 기독교를 인정하는 등 교양인이었습니다.



미요시 나가요시상 모본 (교토대학 종합박물관 소장)

마쓰나가 히사히데(松永久秀)

마쓰나가 히사히데는 일본 역사 속에서 악인으로 회자되어 왔지만, 사실은 나가요시의 오른팔이자 충신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며, 다카쓰키시의 히가시요스미 출신으로 다카쓰키 성주와 관계가 있는 토호층에서 태어났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마쓰나가 히사히데 동상 (다카쓰키시립 성터역사관 소장)

미요시아마산 정상까지가는길



## 속 일본 100대 성 인정 아쿠타가와 산성 터

아쿠타가와 산성터는 미요시아마 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사카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천연 요새를 교묘하게 이용한 전국시대(1467~1615년) 굴지의 성곽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혼마루"라 불리는 성의 중심이 있으며, 지금도 과거의 호리키리(堀切 : 산등성이를 파서 만든 도랑)와 도루이(土塁 : 흙을 쌓아 만든 제방형 방벽), 돌담의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1516년까지 셋쓰(현재의 오사카 북부)를 수호했던 호소카와 다카쿠니(細川高国)가 성을 축조하고 가신 노세 요리노리(能勢頼則)에게 성을 지키게 한 뒤, 아와(현재의 도쿠시마현)에서 셋쓰로 진출한 미요시 나가요시(三好長慶)가 주군인 호소카와 하루모토(細川晴元)를 대신하여 1553년에 입성했습니다. 1560년에 나가요시가 장남 미요시 요시오키(三好義興)에게 집안을 물려주고 가와치(현재의 오사카 남부)의 이이모리성으로 옮길 때까지 약 7년간 이 성에 머물렀습니다. 나가요시는 가신 마쓰나가 히사히데(松永久秀) 등을 중용하면서 아시카가 장군일가를 옹립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기나이 일대(실질적으로 당시 일본 정치의 중심)를 호령하였습니다. 그 동안 아쿠타가와 산성은 정권의 수도였으며, 이것이 나가요시가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에 앞선 천하인(天下人)이라 일컬어지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이후 나가요시는 마카미마을과 군게마을의 수론(水論 : 벼농사를 위해 논에 대는 용수를 둘러싼 분쟁)을 판가름하여 중재하는 등 지역민과 마주하는 정치에 주력했습니다. 사카이의 상인들과 어울려 연가라고 하는 시나 다도를 즐기며 크리스토포 콜럼버스를 인정하는 등 교양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본성의 발굴조사를 통해 본격적인 건물터가 발견되면서 전국시대 성곽의 이미지가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568년, 미요시 일족을 뒤쫓은 오다 노부나가는 먼저 이 성을 목표로 하여 천하의 형세를 살핀 후 교토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그 후, 장군 아시카가 요시아키(足利義昭)의 가신 와다 고레마사(和田惟政)가 입성했지만, 1569년에 다카쓰키성으로 옮겨가면서 아쿠타가와 산성은 서서히 역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 미요시아마 산 정상까지 가는 길

